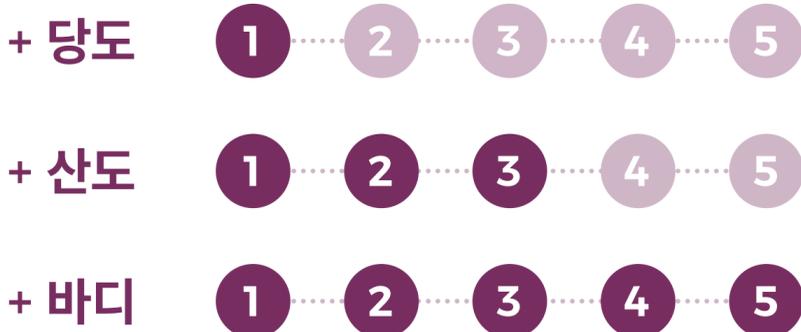




E.Guigal Cote-Rotie La Mouline

# 이기갈 꼬뜨 로띠 라 물린

로버트 파커 100점에 빛나는 정상급 론 와인



|                  |                         |
|------------------|-------------------------|
| Type             | 레드 와인                   |
| Country / Winery | 프랑스 > 론 / 이 기갈          |
| Grape Variety    | 시라 89%, 비오니에 11%        |
| Capacity         | 750ml                   |
| Food Matching    | 최상급 육류요리, 양갈비구이, 트러플 요리 |

## Information

75년 수령의 밭에서 수확한 포도로 양조해 42개월간 새 오크통에서 숙성과정을 거친다. 블랙베리, 작은 붉은 과일과 제비꽃 향이 아로마틱하며 매우 섬세하다. 진한 향과 풍부함, 떼루아를 반영하는 힘찬 맛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실크처럼 부드러운 감촉을 지닌 페미닌한 스타일의 꼬뜨 로띠 와인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20년 이상 더 두고 숙성할 수 있다.

## Awards

- + 2016 | Robert Parker 96-98점
- + 2015 | Robert Parker 97-99점
- + 2012 | Robert Parker 96점
- + 2011 | Robert Parker 96-99점
- + 2010 | Robert Parker 100점, Wine Spectator 99점
- + 2009 | Robert Parker 100점, Wine Spectator 98점
- + 2005 | Robert Parker 100점, Wine Spectator 99점
- + 2003 | Robert Parker 100점, Wine Spectator 99점

## Tip

론 최고의 생산지 꼬뜨 로띠 마을을 대표하는 싱글 빈야드는 단연 '라-라-라 시리즈'로 불리는 라 랑돈, 라 물랭, 라 튀르크 세 곳이다. 이기갈의 라라라 시리즈 2003, 2005, 2009년 빈티지는 세계적인 와인평론가 로버트 파커로부터 모두 100점 만점을 주어 화제를 낳았다. '라 물린'이 실크처럼 매끄럽다면 '라 랑돈'은 좀처럼 자기표현을 하지 않는 사색가와도 같이 묵직하고 힘이 느껴진다. '라 튀르크'는 위의 두 가지 와인의 서로 다른 특징이 잘 어우러져 섬세하면서도 뒷심이 느껴지는 맛을 낸다.